

Date: 13 Iyar 5786 (April 30, 2026)

Torah Portion: Emor

Topic: 해 위와 아래, 제 2 부

하지만 순수하게 물질적인 노동과 달리, 이러한 토라 학습은 결코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게마라(Gemara)는 사람이 설령 '그 자체를 위해서(לְשֵׁמִי; lishmah)'가 아닐지라도(לְשֵׁמִי לְשֵׁמִי; shelo lishmah, 즉 불순한 동기일지라도) 항상 토라와 미쯔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참여를 통해 결국 올바른 의도(lishmah)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약점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토라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선언입니다. 토라는 단순한 지적 탐구나 도덕적 수련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타냐(Tanya)에서 설명하듯, 토라의 말씀은 신성한 의지와 지혜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 안에는 이를 공부하는 자의 영혼에 작용하는 변혁적인 영적 힘인 코아흐 엘로키(קוֹאֲחַ אֱלֹהִים; Divine power) “여호와의 능력”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도가 명예나 인정, 개인적 영달과 같은 자기 이익에 매여 있을 때라도, 토라 자체가 그 수준으로 전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토라는 자신의 초월적 성격을 유지하며, 역으로 그 사람을 고양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간은 "해 아래"에서 토라에 접근할지 모르나, 토라는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토라는 그를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며, 그의 내면 세계를 미묘하게 재형성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하샤바**(makhshava, 생각), **라쨌**(ratzon, 의지), 그리고 **카바나**(kavannah, 의도)는 그가 접하는 토라 고유의 거룩함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자아에 의해 조건 지어졌던 행위는 점차 여호와를 향한 행위로 변모해 갑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해 아래"와 "해 위"의 구분에 대한 중요한 정교함을 제공합니다. 이 범주들은 사람이 영구히 머무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 축(axes)입니다. 라시가 '유익(yitron, 지속적인 이익)'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암시했듯,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사람은 평범한 동기에 이끌려 자연적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고를 시작할 수 있지만, 토라와 미쯔바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 점차 방향이 재설정됩니다. 외부적인 행동—공부하고, 일하고, 같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노력은 더 이상 자기 참조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 너머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헬렛에 대한 미드라시의 해석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구조화된 통로**가 됩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에는 이익이 없다는 선언은 행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환상을 걷어내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완결적인 노력은 영구성을 가져다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식 속에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노동이 내버려 두면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노동을 자연적 한계 너머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익은 축적이나 생산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elevation)**에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 부착시키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코헬렛의 질문은 세상을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해결됩니다. 인간의 노동은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할 때 한계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 봉헌될 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실재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제약에 묶이지 않는 연속체의 일부가 됩니다. 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타하트 하쉐메쉬**(תַּחַת הַשֶּׁמֶשׁ, tachat hashemesh, 해 아래)에서 **레마알라 민 하쉐메쉬**(לְמַעַן מִן הַשֶּׁמֶשׁ; lema'aloh min hashemesh, 해 위)로 이동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것의 몫을 획득하게 됩니다.

수확의 문턱에서 행해지는 오메르의 미쯔바는 이러한 전환을 특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이 독립성을 주장하려는 바로 그 순간—즉, 발이 결실을 내고 노동자가 수고의 열매를 취할 준비가 된 그때—토라는 개입하여 그 과정을 재지향시킵니다. 첫 번째 몫이 따로 구별되어 여호와께 드려집니다. 이 행위는 이후에 따르는 모든 것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수확이 스스로 생성된 것도, 스스로 소유한 것도 아니며, 더 큰 신성한 실재의 일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레시**(רֵשִׁית, 시작)을 성별함으로써, 노동의 전체가 그것과 함께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이 원리는 더 넓은 함의를 지닙니다. 변화는 결과의 단계뿐만 아니라 **기원의 단계**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후에 결과물을 봉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작부터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궤적(trajjectory)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여호와와 일치할 때, 과정 자체가 거룩해지며 최종 결과물은 그 일치됨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진정한 "이익"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고양시키느냐**에 의해 측정됩니다. "해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은 해 그 자체와 함께 사라지며, 흥망성쇠의 동일한 주기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토라와 미쯔바, 그리고 의도의 정화를 통해 "해 위"로 들어 올려진 것은 영원한 것과 결합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영속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지점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바로 그 **결합** 속에 있습니다.

Shalom.